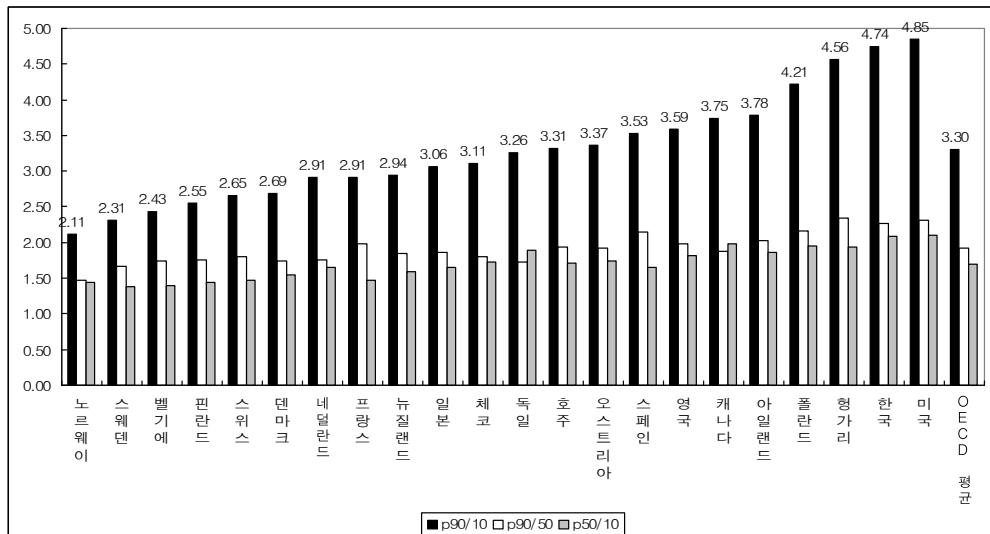


## 근로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

- 한국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OECD회원국(30개 국가)의 분석대상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음.
  - OECD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09*를 통해 22개 회원국들의 2007년 기준 근로소득(Earnings) 불평등도를 발표함.
  - 불평등도는 일반적으로 P90/10, P90/50, P50/10의 3가지 지수로 나타내는데, 예컨대 P90분위수는 근로소득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90%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준이며, 분위수 배율은 각 분위수를 배수화한 수치로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 한국의 2007년도 P90/10 배율은 4.85로서 분석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P90/50과 P50/10 지수도 비교국가 중 높은 수준에 위치하여 근로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 참조).
  - 2007년도 한국의 근로소득 불평등도는 1997년과 비교하여 각 지수별로 모두 높아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들에서도 프랑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그림 1) OECD국가들의 근로소득 불평등도(2007년)

(단위: 지수)



자료: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표 1〉 OECD국가들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단위: 지수)

	p90/10		p90/50		p50/10	
	1997	2007	1997	2007	1997	2007
노르웨이	1.95	2.11	1.42	1.47	1.37	1.44
스웨덴	2.21	2.31	1.61	1.67	1.38	1.38
벨기에	2.39	2.43	1.70	1.74	1.41	1.39
핀란드	2.38	2.55	1.69	1.76	1.41	1.45
스위스	2.41	2.65	1.60	1.81	1.51	1.47
덴마크	2.44	2.69	1.68	1.74	1.45	1.55
네덜란드	2.82	2.91	1.72	1.76	1.64	1.65
프랑스	3.06	2.91	1.92	1.98	1.59	1.47
뉴질랜드	2.72	2.94	1.71	1.84	1.59	1.60
일본	3.01	3.06	1.85	1.86	1.63	1.65
체코	2.77	3.11	1.68	1.80	1.65	1.72
독일	2.87	3.26	1.83	1.73	1.56	1.89
호주	2.95	3.31	1.82	1.94	1.62	1.71
오스트리아	-	3.37	-	1.93	-	1.75
스페인	4.22	3.53	2.10	2.14	2.01	1.65
영국	3.42	3.59	1.86	1.98	1.84	1.81
캐나다	3.53	3.75	1.76	1.87	2.00	1.98
아일랜드	3.93	3.78	2.02	2.03	1.95	1.86
폴란드	3.54	4.21	2.00	2.16	1.76	1.95
헝가리	4.17	4.56	2.17	2.34	1.92	1.94
한국	3.72	4.74	1.92	2.27	1.93	2.08
미국	4.62	4.85	2.20	2.31	2.10	2.11
OECD 평균	3.08	3.30	1.83	1.92	1.67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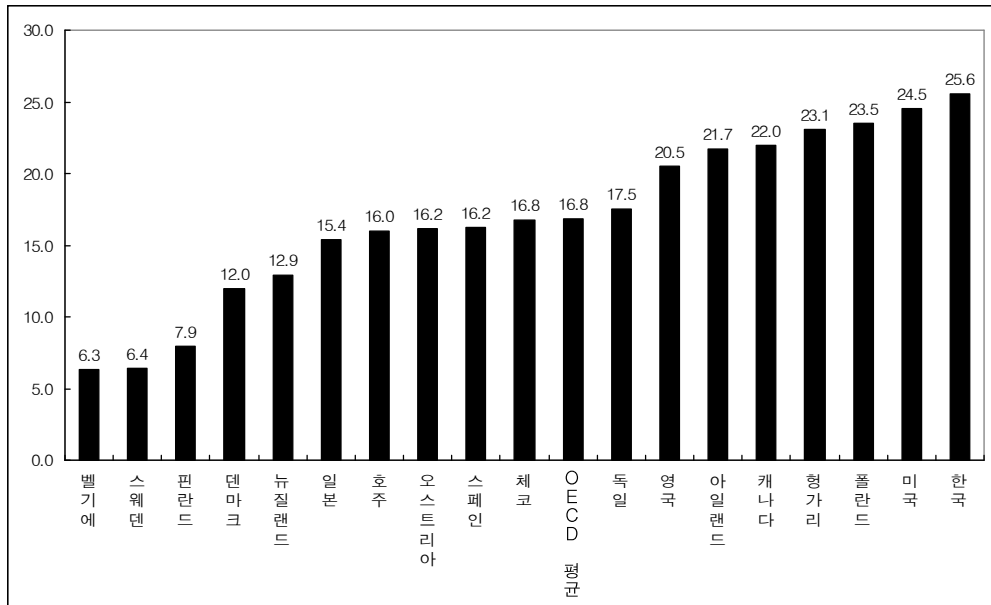
자료: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분석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음.

-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분위배율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의미함.
- 저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값(Median)의 2/3 미만인 자로 정의함.
- 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07년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6%로서 분석대상 18개국 중 가장 높음. **KLI**

[그림 2]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07년)

(단위 : %)



자료 :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